

# “합동 연주 통해 평화 메시지 전달”

**금요 초대석**

이은주 한·독아인하이트 대표

오는 9일 비영리단체 한·독아인하이트 주관으로 ‘2019년 평화통일 공감 메아리’ 연주회가 여수 예울 마루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를 준비한 한·독아인하이트 이은주 대표를 만나 그동안의 과정과 연주회 프로그램, 각오를 들어봤다.



- 한국과 독일이 오가며 평화연주회를 준비한 것으로 안다.

▲ 독일은 한국음악을 졸업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어 떠난 곳이다. 서양음악의 중심 나라이다. 바흐의 나라이기도하다. 마침 그곳이 우리나라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고 공부할 때부터 그 주제로 독일 친구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공감했었다. 그들이 지나온 분단의 아픈 역사를 함께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평화를 염원하는 것은 두 나라 모두 당연히 공감대를 이룬다. 그래서 평화콘서트를 준비했다.

- 평화연주회 추진 의미를 좀 더 알려 달라.

▲ 2018년 10월 독일에서 열렸던 현대음악페스티벌에서 우리 분단의 아픔과 현실에 대해 미래 희망적인 메시지를 넣어 작곡된 의미 있는 세 곡이 장벽이 있었던 포츠담 플랫츠 공연장에서 연주됐다. 독일 베를린 현대 기타 교수로 재직 중인 라이너 펠트만이 우리나라 동요인 과수

지난 6년간 한국과 독일 오가며 교류 양국 청소년 분단·평화 의미 새길 것

원길을 모티브로 작곡한 ‘임진’, 헬무트 웨링이 장벽과 분단을 테마로 철학적으로 접근해 작곡한 ‘그란

체’, 조지 드레푸스가 작곡한 ‘분단을 넘어서’를 한국 DMZ에서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 연주단과 연주해 보고 싶었다.

- 민간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 지난 6년간 교류를 통해 많은 경험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많은 독일 학생들이 한국에서 2주간의 일정을 가지므로 신경 쓸 일이 많고 긴장이 된다. 한국에서 준비하는 시간 동안 주위의 학부모들과 지휘자의 열정, 그리고 학생들이 따나는 노력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사를 드린다.

-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대목은.

▲ 화합과 소통이다. 우리들이 한데 뭉친 모습이 감동이 되고 전달이 돼서 관객과 의미가 소통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 동서의 화합과 남북 화합의 의미를 담고 싶어 조승필 작곡 고종환 작사가가 이번 연주회를 위해 ‘통일이리랑’이라는 곡을 만들었다. 여수 예울 마루 대극장에서 처음으로 연주한다. 소프라노 박소은씨와 국악소녀 윤로사가 노래하는 통일의 노래를 함께 들으면 공감하리라 본다.

- 콘서트에 임하는 다짐과 각오는.

▲ 독일의 학생들이 즐겁게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한국 학생들은 글로벌한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게 세심하게 돌봐주고 싶다.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가 한국 특히 여수의 이미지를 그들 마음 안에 따뜻이 기억하게 하는 것, 또 우리 학생들에게 교류를 통한 넓은 세계관을 가져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싶은 바람이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광양시는 최근 ‘광양관광 도약 원년 선포식’과 해오름육교 준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광양시 제공

## 광양 관광도시 도약 원년 선포식

해오름교 준공 기념식도

광양시도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광양시가 지난 1일 시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광양관광 도약 원년’ 선포식과 함께 해오름육교 준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당초 해오름육교 옆 마동체육공원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선포식은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장소를 변경해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선포식은 약천후에도 불구하고 각계 시민을 비롯해 전남도와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기관단체장 및 관광전문가 등 500여명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 앞서 지역예술인들이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광양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감성적인 울동, 광양시립합창단의 경쾌하고 품격 높은 축하 공연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정형복 광양시장은 환영사에서 “2019년 10월 1일은 철강과 항만도시로 발전해 온 광양시가 지난 30년 동안 이룬 성장 기반을 토대로 문화와 예술,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선포하는 상징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개통한 ‘해오름육교’는 광양해비치로의 관문으로 중마동과 금호동을 연결하고 구룡산 권역에서 섬진강을 하나의 관광벨트로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이 길을 지어주시는 ‘해오름육교’가 시민과 관광객, 그리고 광양의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희망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이번 광양관광 도약 원년 선포식을 계기로 관광이 광양의 새로운 30년, 미래 100년을 여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고 전남도가 광양시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 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늘었다

광양은 측정도 안해... 이정미 의원 “환경부, 방안 마련해야”

최근 5년간 특정대기유해물질 농도규제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철소의 폐쇄화합물과 시안화수소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에 따르면 환경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제철업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연간 배출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안화수소’와 ‘폐쇄화합물’이 매년 배출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안화수소의 경우 지난 2013년 8만2,800kg이 연간 배출됐다. 지난 2017년에는 14만 3,423kg으로 5년 사이에 1.7배 증가하고, 폐쇄화합물의 경우 2013년 5만2,103kg에서 2017년 19만4,312kg으로 무려 3.7배나 증가했다.

환경부는 지난 90년대부터 특정대기유

해물질에 대한 농도규제를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일부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던 것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자료는 기업이 제출한 자가 측정 자료를 토대로 환경부가 연간 배출량을 산정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주)당진 제철소에서의 시안화수소와 폐쇄화합물 배출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사업장별 배출량 차이를 확인한 결과,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2016년부터 폐쇄화합물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아 자가 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시안화수소의 경우 측정을 실시하지만 약 8배 차이가 나타났다. 향후 동일 제철업계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구수와 배출량 등을 조사해 오염물질 배출량 차이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감사원의 ‘산업시

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열처리 등 일부 공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시안화수소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제철은 1년 8개월 동안 특정공정에서 두 차례나 시안화수소 배출 기준치를 초과했는데도 사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5조에 따라 시안화수소와 폐쇄화합물의 경우 연간 10톤 이상 배출사업장은 3ppm, 그 외 사업장은 각각 5ppm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는 인체에 위해도가 높은 물질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관리하고 있지만 대기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비판한 뒤 “환경부는 현대제철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남북관계 풍자극 ‘연극 소’ 17일 보성문화회관에서 선포

보성군이 오는 17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1996년 실제사건을 바탕으로 한 코믹 풍자극 ‘연극 소’를 선보인다.

이번 작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최석화공연개발사업 선정작으로 북한의 잃어버린 ‘소’ 한 마리를 찾으려 벌이는 팽팽한 남북관계를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내는 우화극이다.

잃어버린 소 한 마리를 반환하는 문제는 남북 고위급 회담, 긴급한 군사작전, 국제 사법 재판 등을 거쳐 흥미진진하게 진행된다. ‘연극 소’는 한반도의 정치, 군사, 외교 상황을 코믹하게 풀어내며 우리 시대의 분단 문제, 전쟁, 평화에 대한 갈망, 생태계의 복원 등의 무거운 주제를 재치 있게 이야기한다.

티켓은 보성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또는 티켓링크에서 예매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보성군문화예술회관(850-8661-3) 또는 홈페이지(http://www.boseong.go.kr/a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



곡성군은 물 절약을 위해 누수점검 등 물 절약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 곡성 물 절약 운동 앞장...가정 내 누수 무료 탐사

곡성군이 물 절약을 위해 수도물 누수를 확인하고 군민과 함께 누수점검 등 물 절약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곡성군은 연간 약 400만톤의 수도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된 총 수도물 중 누수되지 않고 경제적 수익을 발생시키는 비율은 51.9%에 불과하고, 누수율은 43.1%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우선 대대적인 물 절약 홍보에 나서고 있다. 단기적 처방과 함께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 처방도 준비 중이다.

곡성군은 최근 2020년 신규시책 보고회에서 ‘육내 급수관 누수탐사 무료 서비스’를 발표했다. 곡성군은 내년 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비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도물 누수 확인을 통해 물 절약할 수 있는 만큼 군민들에게 누수 여부 자가 확인법도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모두 관심을 갖고 물 절약 실천운동에 참여한다면 절약한 수도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 클릭! 고흥 소식



### 고흥 노인의 날 기념행사

고흥군은 최근 고흥팔영체육관에서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시니어 재능예술제’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경로의 달을 맞이해 경로효친 사상 함양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어르신

들의 노고에 감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귀근 군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진준연 기자



### 보성교육청, 중학생 토론회 개최

보성교육청은 최근 관내 중학교 학교별 대표팀이 참여한 가운데 중학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사고는 폐지돼야 한다’라는 논제로 전담형 디베이트 토론방

식으로 진행됐다. 백남근 교육장은 “학교에서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토론문화를 확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



### 곡성 가족힐링캠프 성료

곡성군은 최근 ‘2019년 가족힐링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캠프는 가족 구성원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부부 자화상 그리기, 톤치임과 칼라벨 연주하기, 개사하여 노래부르기 등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